



MONTHLY **KOFA**

코파의

잡지

“코로나 퍼질라” ...
인도네시아, 올해도 최대 명절 귀향 금지
5월 6~17일 라마단 끝 무렵부터 르바란 귀향 금지 발표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79**
2021/04

그 끝자락이 보인다!!!

CORONA - 19
PSBB
CORONA - 19
19 PANDEMIC
VIRUS
CORONA - 19
PANDEMIC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4가지 위험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장관은 올해 인니 경제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은 자산의 버블, 에너지가격 상승, 채무 증가, 지정학적 위험 등 4가지 요인이라고 밝혔다.
 1. 지방사안 대학(Universitas Kebangsaan) 전략연구소(Institute Kajian Strategis, IKS) 선임 이코노미스트 에릭 수간드(Eric Sugand)는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2. 석유와 같은 에너지 가

격 상승이 문제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수입국이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유와 같은 농산품의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자산의 버블은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유출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미국 달러당 루피아 환율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4. 채무증가로 인하여 이머징 시장에서 다른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질 위

험이다.
 에릭은 선진국 채권자들은 이머징 국가들이 경제회복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넷째, 지정학적 위험이다. 예를 들면 남중국과 중동지역의 해상 충돌이다. 그러나 에릭은 인도네시아 경제는 보통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가계 소비가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에릭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계적 위험 가운데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계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경제성장을 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사회적제한조치(PSBB)를 보다 잘 지켜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4.6%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도 AZ백신 유보 해제... “내주부터 접종 시작”

혈전 우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유보했던 인도네시아가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장관은 19일 “신의 가호로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통과 접종을 시작할 것” 이라고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1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그동안에는 중국 시노백사의 백신만 사용해왔다. 인도네시아는 백신 공동구매·배분 기구 코백스(COVAX)를 통해 총 1천170만회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기로 하고, 이달 8일 1차로 111만여회분을 수송 받았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곧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나, 유럽에서 해당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15일 “세계보건기구(WHO) 확

인을 받을 때까지 접종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WHO는 1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그것의 위험성보다 크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EMA)은 18일 “안전성 임시위원회는 이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다만, “매우 드문 특정 종류의 혈전과 이 백신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붙였다.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도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4만여명, 사망자는 3만9천여명이다.
 전날까지 483만여명이 백신 1차 접종을, 194만여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연합뉴스]

“인니, 경제성장 6~7% 성장해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가 연간 6~7% 경제 성장률을 보여야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청장은 “경제성장률이 2022년부터 평균 7% 이상 되어야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타격으로 경제성장률이 5%대가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중진

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018년 미화 3,927달러에서 2019년 4,174달러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 3,911달러로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8년에 3,810달러에서 2019년에 4,047달러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 3,806



달러로 감소했다.
 수하르소 청장은 1인당 GDP와 1인당 GNI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중간소득국가 중 하위그룹(lower-middle income country)으로 분류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2.07% 성장했지만 올해는 반등해 5%를 기록하고, 2022년에는 중간소득국가 중 상위 그룹(upper middle-income country)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미국(경제성장률 -3.5%), 중국(-6.1%), 멕시코(-8.3%), 필리핀(-9.5%) 등 세계 각국이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의 -2.07%는 상대적으로 선방

했다고 볼 수 있다.
 수하르소 청장은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달성할 때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4.0%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콘탄(Kontan)이 보도했다.
 OECD는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4%가 되고, 미국은 4.0%, 중국은 4.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코로나 퍼질라” ... 인도네시아, 올해도 최대 명절 귀향 금지

5월 6~17일 라마단 끝 무렵부터 르바란 귀향 금지 발표



▲작년 4월 24일 라마단 첫날 아체주 모스크에서 열린 합동 기도회 [AP-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과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년 연속으로 최대 명절인 ‘르바란’ (이들 피트리) 귀향을 금지했다.

무하지르 에펜디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장관은 2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르바란에도 귀향을 금지한다” 며 “연휴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귀향을 금지하고,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만 서류를 제시하는걸 전제로 도시 간 이동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라마단은 4월 13일째부터 한 달간이고, 라마단이 끝나는 대로 5월 13~14일 르바란 휴일이 예정돼 있다. 같은달 15~16일이 주말이라서 연휴가 길다.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은 초승달의 위치를 관측해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

이슬람 신자들은 라마단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한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라마단이 끝나면 최대 명절인 르바란을 즐기는데, 코로나 사태 전



▲ “자카르타로 돌아가라” 작년 르바란 귀향객 단속 장면 [AP-연합뉴스]

에는 통상 2천500만명 정도가 차량·선박·항공기를 타고 귀향길에 오르고, 전국 모스크에서 대형 합동 기도회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에도 르바란 연휴를 이틀로 줄이

고, 대도시 거주민의 귀향과 합동 기도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제발 집에 있어 달라” 는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도시 거주민들은 어떻게든 고향에 돌아가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출장명령서, 코로나19 대응 물자 수송 확인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들기도 했고, 견인차를 빌려 고장 난 차량으로 위장한 미니버스 속에 숨은 귀향자들도 있었다.

자카르타 외곽에서 출발해 하루 100km씩, 400km를 걸어 고향에 간 남성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작년 르바란 이후 1천명대로 올라섰고 그 뒤로 계속 늘어 올해 1~2월에는 1만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5천~6천명을 오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48만2천여명, 사망자는 4만81명이다. 연합뉴스

인니, 20개월만에 수입 증가세 회복... 경기 회복 조짐



인도네시아 연간 수입(import) 증가율이 2019년 7월 이래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활동과 투자가 회복하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1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인도네시아 수입액은 132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6% 증가해, 2019년 7월부터 이어지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올 2월 수출액은 올 1월보다는 6.49% 감소했다. 수하리얀포 BPS 청장은 2월 수입액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자본재는 16.32%를 차지하므로, 수입액 증가를 제조업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15일 말했다. 2월 수입액 중 소비재 비중은 9.2%였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사회적제약(PSBB, 준봉쇄)를 시행해 무역 활동이 큰 타격을 받으면

서, 2020년 5월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23%, 수출액은 29.15% 급감했다.

2021년 2월 수입액을 2년 전인 2019년 2월과 비교하면 6.33%가 증가했고, 특히 의약품, 과일, 마늘 등 소비재는 2년 전보다 43.59% 증가했다.

2021년 2월 수출액은 152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6% 증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세를 유지했다.

올해 2월 제조업 부문 수출액은 121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해, 광업과 농업 등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제조업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1월과 2월 누적 수출액은 305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0.35% 증가했다.

2021년 2월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하리얀포 청장은 “2월 수출과 수입 실적이 매우 만족스럽다” 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교민 여러분 덕에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중 인도네시아 임직원 일동



전경련 “일자리 창출 위해 76개 법률 개정 · 폐지한 인니 배워야”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제정한 노동·규제개혁법안인 ‘옴니버스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법률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정한 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동법 등 76개 법률 중 상호모순적이고 불필요한 1천200여개 조항을 개정·폐지한 옴니버스법을 제정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 텐소·파나소닉, 한국 LG전자 [066570] 등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42% 줄었는데도 인도네시아는 1.2%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한국기업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도 올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드라 세티아완 ABNR 노동법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라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

림돌로 여겨졌던 노동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 법 규정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옴니버스법의 노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과 시사점’이란 발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부 아웃소싱 관련한 제한을 철폐하고, 기간제 고용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도 완화하고, 지역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유미 웰리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금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적기”라면서 “다만 법이 인도네시아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기업 친화적이고, 노동 개혁적인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수가 세계 4위에다 평균연령이 29세에 불과한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면서 “옴니버스법이 제대로 운영되면 인

도네시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친기업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경제미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BCA은행, 어떻게 마그네틱 카드를 칩카드로 변경할까?



중앙은행 규정에 의하여 마그네틱 현금인출(ATM)카드의 사용기한은 2021년 말에 종료된다. 따라서 은행의 구식 ATM카드는 2022년 1월 1일로 효력이 상실된다.

BCA은행 전무이사 헤라 하린(Hera F Haryn)은 “우리 은행은 고객거래의 범죄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마그네틱 카드

를 칩카드로 교체하고자 노력 중이며, 2020년 12월 말까지 데빗(Debit)카드 2,250만 개 중 80%에 해당하는 1,850만 개의 카드를 교체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BCA은행은 올해 ATM 카드 교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손쉽게 교환하도록 간편화 하는 등 교환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칩을 읽을 수 있도록 ATM기기와 BCA EDC 전체를 교체하였다고 헤라 전무이사는 말했다.

또한 고객들은 가까운 지점에 KTP와 기존카드를 지참하면 새로운 ATM카드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 칩기반의 새로운 카드는 불법복제(스키밍)와 같은 범죄 위험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S Digital BCA 기계를 준비하여 손쉽게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헤라 전무는 말했다.

금융감독원 여신잔액 아직 마이너스인 민간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OJK)은 2021년 2월까지는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 은행 여신이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의 여신확대를 강조하였다.

OJK 커미셔너위원장 워보 산또소(Wimboh Santoso)에 따르면 올초 은행 여신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월 현재 여신 증가율은 연 2.15%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영은행(Bank BUMN)과 저축은행(BPD)에서는 여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



시중은행과 외국은행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국영은행 여신 증가율은 1월 -4.5%에서 2월 -5%로 줄었지만, 국영은행그룹의 여신 증가율은 1.45%에서 1.5%로, 또한

BPD의 여신 증가율은 5.68%에서 5.75%로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시중은행과 외국은행의 여신 잔액은 -5%와 -25%가 각각 감소하였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에서는 민간은행에서 줄어든 여신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시중은행과 외국은행을 감독하고 있어, 2021년 경제 성장률 4.5%에 필요한 여신증가율 목표인 7.5% 증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다.

자카르타경제신문



한번 시공으로 오래 사용하는
에폭시 바닥 코팅시공
최상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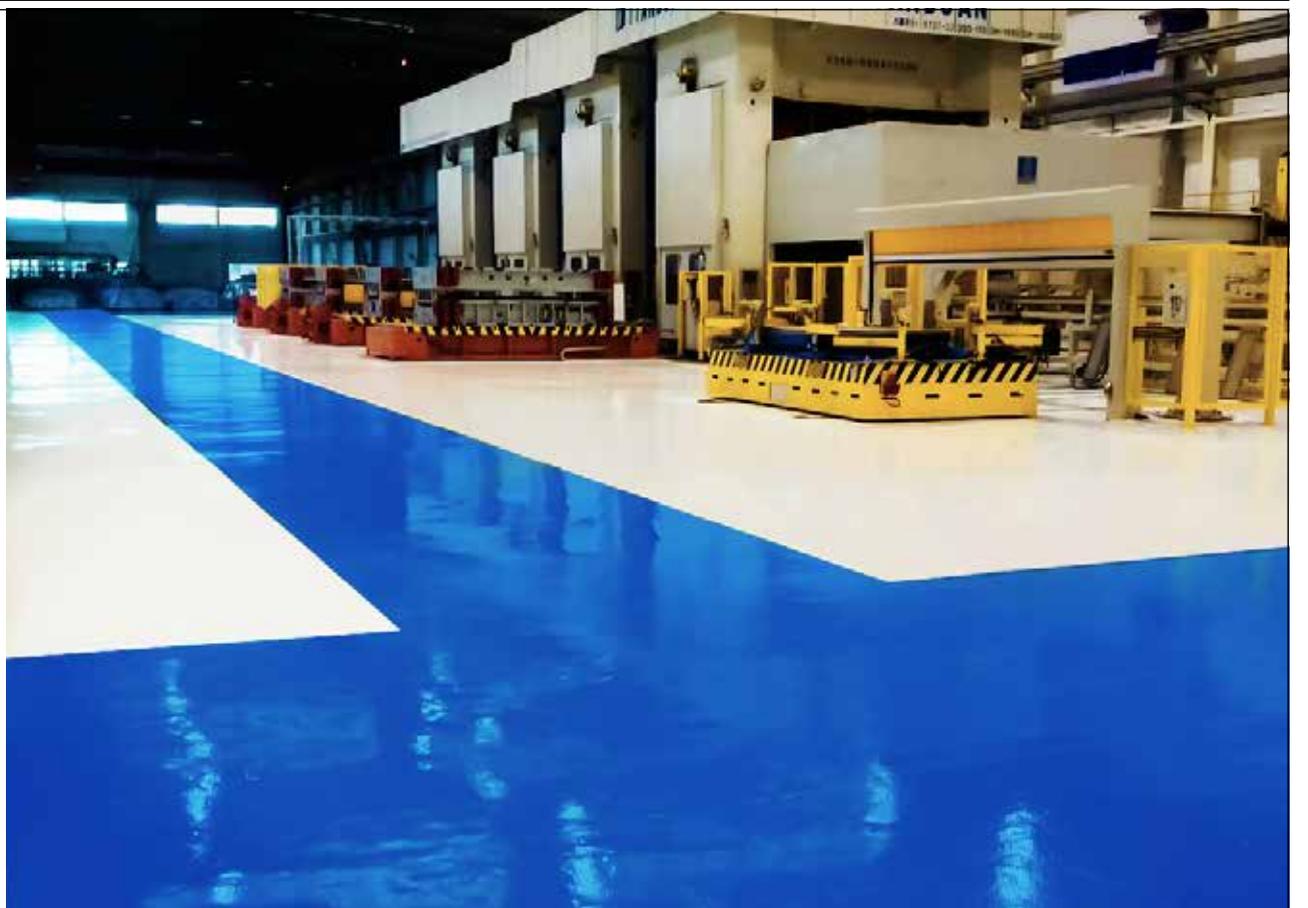
PT. Dwi Mitra Anugrah

☎ 021) 880 3515

0812 100 0055

🌐 kr.dema.co.id

✉ jslim@dema.co.id



신태용 감독, 에어앰블런스로 한국행... “지병 치료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 후 회복한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27일 오전(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에어앰블런스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신 감독은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화에서 “코로나19는 치료 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다른 지병이 악화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2주 동안 병명을 모르는 채 몸이 너무 고생했다”며 “컨디션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감독은 이달 초부터 코치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도 발열 증상과 인후통, 식욕부진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이 계속 반복돼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등 고통을 겪었다. 그는 네 번째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20일 새벽에서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자카르타의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신 감독은 입원 과정에 정밀검사를 진행, 코로나19 감염과는 별개로 지병이 악화된 사실을 발견해 치료를 병행하던 중 폐에 일

부 물이 차는 등의 증상을 확인했다.

신 감독은 현지에서 지병을 치료받기에는 쉽지 않다고 봤고,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해 26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 여객기를 타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보고 자비로 에어앰블런스를 대절했다.

신 감독이 자카르타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감독이 이용하는 에어앰블런스는 한국 대사관이 소개했다.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신 감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에어앰블런스를 타기까지 인도네시아 체육청소년부, 인도네시아축구협회와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자카르타 수도권 교민과 수라바야 주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폐렴 등 증상이 악화하자 에어앰블런스를 대절해 각각 한국으로 들어갔다.

자카르타에서 한국까지 에어앰블런스 비용은 약 1억3천만원이다.

신 감독은 “본래 축구협회와 협의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 코치진과 모두 함께 한 달 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계획돼 있었다”며 “한국에 들어가 건강을 회복한 뒤 자카르타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 감독이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됐지만, 가족들을 만나길 위해 일시 귀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미나리짱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속풀이나 해장국으로 복국을 즐겨 먹는다. 요리사가 피를 뽑아 물에 잘 행구어 해독을 한 복을 삶아 두었다가 국물에 삶은 복 덩어리를 빼내 넣어주면 다시 끓여가며 먹는데 냄비 위에 생 미나리를 수북이 올려 숨이 다 죽기도 전에 초장에 찍어 먹는다. 그 맛이 후련하다. 복 껍질의 젤라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알코올을 잘 분해 할 것만 같다. 실바람이 얼음 녹은 개울물을 헤적일 때 쫄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직 뒷산엔 잔설이 남아 있는 겨울 끝자락의 미나리짱에는 파랗게 자란 미나리를 채취하느라 시린 손발들이 굳어 마비 직전이다. 그래도 이때 가격이 좋으니 어디 쉽게 돈 버는 일이 있겠는가 싶어 참고 견딘다.

미나리는 무늬에서 자란다. 미나리는 습지에서 비교적 잘 자라므로 키우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줄기를 잘라 내고 나면 또 거기서 자라므로 모내기처럼 또 파종하고 이식할 필요가 없다. 꽃이 피기는 하지만 씨를 심는 것 보다는 포기 나누거나 줄기를 물에 담가 뿌리가 내리면 이식한다. 개울가에 저절로 자라는 미나리는 별로 크지 않으나 역세고 향이 강하여 따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눈에 물을 대고 거름을 주며 길러낸다. 산지에서 미나리에 삼겹살을 구워 소주와 곁들여 먹는 ‘미삼’ 불고기는 새로운 명물이다. 생 미나리를 초고추장에 무쳐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

사위는 아칸소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장을 만들고 병아리 감별사로 벌어 보태는 딸을 위해 외손주를 봐주러 온 할머니가 미나리 씨를 가져와 개울가에 심는다. 이 할머니, 이역만리에 두고 온 고향과 친구들이 그리울 것이다. 신이 왜 가족을 만들었을까? 아니 왜 어머니를 만들었을까? 친정어머니가 우주(宇宙)가 되어 딸과 손주들과 딸의 남편을 보듬어주고 있다.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감독인 ‘아이사

정’은 가슴에서 우리나라의 언어, 서로를 꺼안고 사랑하는 언어를 배우고 그걸 전파하려고 했단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미국영화가 아니라면 한국영화도 아니고 사랑의 영화라야 맞는 것 같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와서 죽을 고생으로 잡초처럼, 억척같이 살아남는 사람들의 드라마, 대단한 스토리 맞다. 한번 배달에 2천 원 정도를 벌기위해 목숨을 걸고 쓴살 같이 달려야 하는 이 땅의 ‘퀵배달’ 청춘들, 과로사가 한 돌이 아닌 택배 기사들, 단지 못해 열려둔 가게의 주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개봉과 동시에 한국의 극장에 가서 보았다. 등성등성 앉은 극장 어디에서 이내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민망하고 죄송하여 당황했지만 두 시간을 집중시키도록 잡아두지 못하는 영화인 것은 분명하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고 웅장하거나 화려한 배경음악에, 박진감으로 몰입시키던 액션 영화에 익숙한 어느 관객이 따분했던 모양이다. 사실 나도 처음 얼마간을 보면서 이 영화를 미리 다 매겼다. 기승전결의 기와 승을 보아하니 특별한 반전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끈기와 투지로 불굴의 삶을 감당해 낸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평해한다 할까 싶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느슨하지 않고 탄탄하게 잘 엮인 작품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 싶다. 소자본으로 만든 (돈 적게 들인) 영화인 점을 감안하고 보아도 스토리 말고는 무얼 뛰어나다 할지 잘 모르겠다. 서너 개가 아닌 수십 개의 상복이 터졌다는 이 영화, 미나리는 1년 전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되어 미국 극영화 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관객상을 받은 작품이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상복이 터지고 불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상을 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댄스 영화제는 독립영화제로 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국내와 국



조기조

제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시나리오를 미리 심사하여 선정되면 재단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한다. 여러 나라의 영화를 보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 번역하고 자막을 올려도 어떻게 제맛을 내겠는가 싶어 내가 안 할 걱정을 다 한다.

마을 앞에 있어서 온갖 하수가 흘러들어 벼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 미나리짱이었다. 생활오수는 말할 것도 없고 길에 널브러진 개똥, 쇠똥이 비가 오면 흘러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자라는 것이 물에서 자라는 나리(백합)라는 뜻의 ‘물나리’인 미나리다. 알듯 말듯 하다.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받아주어 바다가 되었다는데 미나리짱의 짱을 수십억을 기대하다가 휴지가 되어버린 로또의 짱에다 빗대어 본다. 미국땅이라고 미나리가 없겠는가? 사람들이 잘 먹지 않으니 몰랐을 것이다. 영어로 water dropwort인데 이제 Minari로 굳어질지 모르겠다. 장안의 화제가 아니라 지구촌에 화제를 일으키니 미나리짱에 가서 삼겹살에 ‘쏘주’나 한 잔 할까 싶다.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인니인 3천400명, 한국 취업비자 받고도 발 묶여...코로나 때문”

매년 고용허가제로 5천~7천명 한국 취업했으나 작년은 641명



▲2019년 한국서 돌아온 인니 근로자에 재취업 알선 간담회 [산업인력공단 제공]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고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국 노동자가 최소 3천 4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16일 인도네시아 해외송출보호청(BNP2TKI)의 따팜 부디 우따따 라자크 부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한국으로 갈 예정인 근로자 3천 400명이 들어가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잘 처리한 캄보디아 등 다른 나라 근로자는 한국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줄어들어야만 한국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3천400명 가운데 615명의 한국 취업비자는 이미 만료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는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화에서 “지난해 코로나 사태 여파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 취업한 인도

네시아인 근로자는 641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본래 2004년부터 양국 정부 약정에 따라 매년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5천~7천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한국행 기회를 얻었다. 2019년 가을 기준으로 누적해서 총 9만명이 한국에서 일했고, 6만여 명이 복귀하고 3만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한다.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른 인원이 2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었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인원도 3천400

명 정도에 그쳤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새해 들어 하루 1만명이 넘게 증가하다가 이달 들어 하루 5천명 안팎으로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전체 2억7천만명 인구 대비 검사를 자체가 떨어진다. 누적 확진자는 142만5천여명, 사망자는 3만8천여명이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인은 누적 142명에 이른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갈 기회를 ‘복권 당첨’에 비유하기에, 속히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월 최저 182만원을 받고, 기술이 숙련되거나 야근, 특근을 하면 25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보통 월급의 30%를 한국에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70%를 인도네시아에 송금한다고 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공공 백신접종센터 운영 추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중부자바 주도 스마랑, 동부자바 주도 수라바야, 서부자바 주도 반둥 및 반둥 주도 세랑 등 자바섬 주요 도시에 공공 백신접종센터

를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르야 시놀링가 국영기업부 대변인은 스마랑과 수라바야에 세워질 공공 백신접종센터가 이달 중 운영 예정이고, 반둥과 세랑은 4월에 개장할 예정이라며, 각각 하루 5천명

한국행 막히자 ‘북촌한옥마을’ 만든 인도네시아



▲(사진=Otomania/Setyo Adi)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북촌한옥마을이 조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자 한국 관광을 꿈꾸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22일 콤포스닷컴에 따르면 서부자바주(州) 타식팔라야 관광지에 이달 말 북촌한옥마을을 본뜬 공원이 문을 연다. 기와집과 장독이 정겹고 ‘북촌’이라는 한글 간판이 선명하다. 한국 가요(K-팝)를 주제로 한 공원도 선보인다.

한국 공원이 들어서는 카랑르식관광단지의 유수프 소장은 “K-팝과 한국 드라마 팬들

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가 팬찮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다른 곳에도 한국을 모방한 공원이 있지만 우리 공원은 치탄두이강 덕에 한국 분위기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북촌마을의 건축과 디자인은 지역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맡았다.

카랑르식관광단지의 북촌한옥마을은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를 겨냥하고 있다. 올해 르바란은 5월 13일(연휴는 5월 12~14일)이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안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수프 소장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은 한 번 대여하면 바로 세탁하고, 기와집 등 시설도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관광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데일리인도네시아]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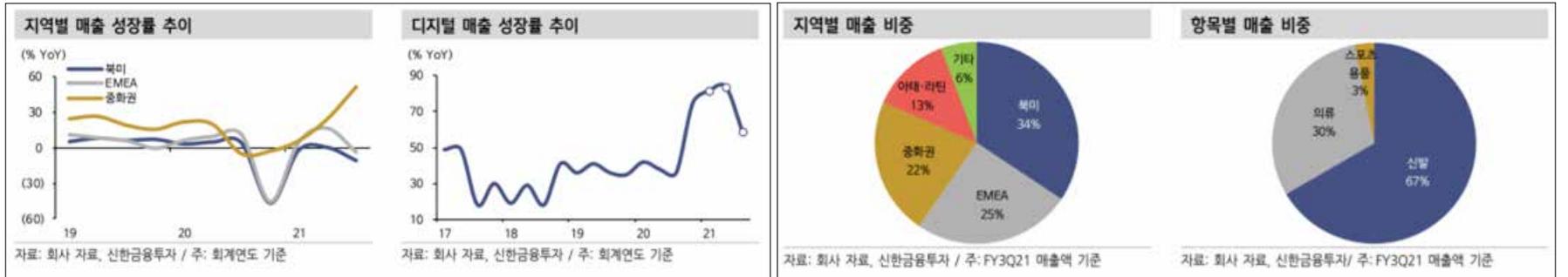
“나이키, 북미 지역 재고 정상화 · 경기 부양 효과 기대”

나이키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백신 접종과 북미 지역 재고 정상화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 부문과 직접 판매 채널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및 나이키에 따르면 12월부터 2월까지 나이키의 3분기 매출액은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이슈와 미국 재고 이슈를 상쇄했다”며 “디지털과 직접 판매는 나이키 브랜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4분기 예상 매출액과 EPS는 각각 107억달러를 기록해 69% 성장하고 EPS는 0.53달러를 기록해 흑자 전환할 것

문의 강세와 핵심 지역인 중국의 브랜드 모멘텀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 역시 회사 영업 환경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지속되는 만큼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최근 회사는



104억달러로 전년 대비 3% 늘었다. 북미 재고 지연과 유럽 재봉쇄 영향으로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6%가량 하회했다. 주당순이익(EPS)은 0.90달러로 같은 기간 70% 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18% 상회한 것이다.

매출이 저조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유럽 직영매장 45%가 휴점해 EMEA 지역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했다”며 “중국 춘절기간 쇼핑 수요 확대와 라이브 스트리밍, SNS 등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효과로

매출 성장세는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부문과 직접 판매 채널의 성장도 지속됐다. 디지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59% 성장했고, 직접판매 매출은 20% 늘었다.

으로 보인다. 북미 재고 정상화와 글로벌 리오픈ing 수혜가 더해지면서 추정치는 향후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은혜 연구원은 “전략적으로 강조 중인 디지털 매출 부

테크 플랫폼으로의 진화에도 성공하며 성장주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가격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중심 동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신발 신어봤어? 접지력이 최고야!



사람의 신발과 자동차의 타이어는 기본적인 역할과 성격이 유사하다. 신체 및 차체가 땅에 맞닿은 유일한 부위이며, 관절 및 서스펜션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한다. 그리고 접지력을 활용해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특징을 공유한다. 이렇듯 다양한 공통점을 가진 만큼 각 영역의 콜라보레이션도 활발하다. 콘티넨탈은 같은 독일 국적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와 손을 잡고 10여년 간 운동화 밀착을 개발해 왔다. 아디다스 일부 운동화 라인업과 더불어 등산화 ‘테렉스’ 라인업에는 콘티넨탈에서 개발한 TRAXION 아웃솔이 탑재된다. 타이어 기술력을 적극 활용한 이 아웃솔은 미끄러운 계

곡 바위길이나 얼어붙은 빙판길 등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한다. 미쉐린은 이탈리아 패션브랜드 살레와 제품의 아웃솔 제작에 참여했다. 미쉐린은 산악바이크용 타이어 기술을 신발 아웃솔에 적용해 접지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살레와 브랜드는 아이즈원, 옥택연 등 인기 연예인들을 앞세워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였지만, 판매 부진으로 2년 만에 완전 철수했다. 미쉐린은 살레와 외에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이룬다. 마무트, 미즈노, 밀레, 컬럼비아 등 아웃도어 브랜드를 비롯해 스케이트화 에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슈즈 캠퍼 등과 손을 잡고 아웃솔을 납품한다.

피렐리는 푸마와 협업을 진행했다. 두 브랜드 모두 모터스포츠의 긴 역사를 함께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푸마는 스쿠데리아 페라리,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레드불 레이싱 등 다수 F1 팀에 슈트와 부츠 등 레이싱 기어를 공급하는 공식 스폰서다. 피렐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OET)로 납품되는 신투라토의 패턴을 푸마의 레이싱슈즈 스타일 스키커즈 레플리케 X에 접목시켜 콜라보레이션 신발을 선보였다.

푸마의 경우 피렐리뿐 아니라 메르세데스-AMG, 포르쉐, 페라리 등 다양한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와 모터스포츠 패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국내에서는 한국타이어가 2015년 아웃솔 전문브랜드 비브람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독특한 콘셉트의 타이어 및 신발을 선보였다. 한국타이어는 비브람 산악 하이킹용 신발 아웃솔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오프로드 콘셉트 타이어 ‘다이나믹스’와 ‘다이나싱크’ 2종을 선보였고, 비브람은 한국타이어의 첨단 타이어 기술을 접목한 콘셉트 슈즈 ‘다이나 트렉’과 ‘다이나 스트라이크 비케이엘’, ‘옴니뮤즈’ 등 3종을 탄생시켰다. 해당 5종 작품은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출품됐다.

인도네시아 최적의 스크린 골프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초 저가 한국산 스크린골프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1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1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자카르타(내) 3개점 직영 운영중
현장공사(3~5일) 작업완료
신속한 A/S팀 운영중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 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상담문의 : 팀장 이 정기 0815 7456 8000
카톡 : golf03651 밴드 : 골프 크리닉



지난해 10월 이른바 옴니버스법(Omnibus Law)이라 통칭되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이하 '고용창출법')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2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나아가 올해 2월 16일, 3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고용창출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으로서 총 45개 정부령 및 4개 대통령령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창출법은 총 15장 18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총 76개의 법률을 개정하고 2개의 법률을 폐지하는 방대한 내용의 법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창출법 제정으로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창출법은 투자 인허가, 노동, 건설, 환경, 통상 등 다수 분야의 법령을 개정하였고,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정으로 다수의 정부령 및 대통령령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투자법 분야에 있어서, 개정 투자법은 기존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의 대부분을 무제한 투자 개방 업종으로 변경함으로써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투자법령에 근거하면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과 전통문화 관련 산업, 해상 운송업, 방송업 및 금융업, 광업, 소규모 및 단순 기술 사용 소매업/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거나 인프라 관련 규제산업으로 인식되는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투자 조건의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으로 고용창출법에 따른 변경 사항 중 외국인 투자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시리즈로 편성하여 순차로 안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그중 외국인의 투자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자법,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의 변경 내역을 우선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고용창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의 변경

(1) 고용창출법에 따른 투자법 개정 및 대통령 규정 제정 사항
고용창출법은 제77조 이하에서 인도네시아 투자법(Law No. 25 of 2007) 중 인도네시아 내 투자 조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 규정에 담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21년 2월 2일에 대통령 규정 2021년 제10호 (Presidential Regulation No. 10 of 2021, 이하 '신규 대통령 규정')가 제정되었고 이는 3월 5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신규 대통령 규정에서는 외국인에게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등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투자의 투자환경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신규 대통령 규정에 따른 투자조건 관련 업종 분류
기존 투자법 및 관련 대통령 규

정은 전체 업종을 투자 금지, 조건부 투자 가능, 전면 허용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신규 규정은 이를 투자 금지, 조건부 투자 가능,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우대(Priority), 전면 허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우대(Priority) 업종 분류를 신설하고, 기존의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을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과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으로 상세 구분하였습니다.

신규 대통령 규정에 따른 업종 분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이 부과되는 업종은 투자금지, 조건부 투자 가능,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이며, 그 외 우대 업종과 전면 허용 업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각 업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가 금지되는 업

종으로, 1등급 마약류의 재배 및 관련 산업, 화학 무기 제조 산업,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에 관한 어로행위, 도박 및 카지노 관련 산업 등의 업종과 기타 그 특성상 중앙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은 일정한 조건(최대 지분율 제한 또는 특정 허가의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하에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입니다.

신규 대통령 규정 별지 3에 기재된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은 총 46개로, 총 350개에 달하던 기존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범위의 업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 개방한 것이어서 투자법 제정 이래 가장 극적인 변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

본 업종 분류는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이하 통칭하여 '중소기업'이라 합니다) 지정(Allocation) 업종과 협업(Partnership)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지정(Allocation) 업종의 경우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주체의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인 중소기업만이 수행 가능한바,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은 해당 업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관련 투자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은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편 협업(Partnership) 업종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요구되는 업종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된 협업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나 선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석상으로는 일용 플라즈마(Plasma) 방식(예: 팜 플랜테이션의 경우), 하도급, 에이전트, 프랜차이즈 계약 등의 형태를 통한 공동 사업의 형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상 실무상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협업 업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아직까지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협업 업종 내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0%인 형태로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된 실제 선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실무상 허용 여부는 진행 과정에서 관할 관청 등의 추가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 대통령 규정에 기재된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업종은 총 89개로, 기존 대통령 규정에서 총 145개의 업종을 중소기업 지정 업종으로 분류하여 두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입니다.

[우대 업종]

우대 업종은 기존 투자법 및 대통령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분류입니다. 우대 업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투자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며, 이에 더하

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여러 재정적/비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우대 업종에 대한 재정적 혜택은 Tax Holiday, Tax Allowance, Investment Allowance, 관세 면제 등을 포함합니다. Tax Holiday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50% 등)하여 주는 제도이고, Tax Allowance와 Investment Allowance는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전 순이익 등의 계산 시 요건에 따라 순이익을 일부 공제하는 등의 일정한 계산상의 혜택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위 각 제도의 상세 내역에 관해서는 각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정부령 및 재무부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재정적 혜택은 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법령에 따른 제반 편의 제공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규정 첨부 1에 기재된 우대 업종은 총 245개(Tax allowance 183개 업종, Tax Holiday 18개 업종, Investment Allowance 44개 업종)입니다(본 뉴스레터상 각 업종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함).

[전면 허용 업종]

전면 허용 업종은 투자법 또는 대통령 규정 및 그 별지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위 대통령 규정 첨부 1~3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모

인도네시아 개정 옴니버스법 및 시행령

항목	기존	변경
투자 금지 업종	총 20개	총 6개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	총 350개	총 46개
중소기업 지정/협업 업종	총 145개	총 89개
기타 변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45개의 우대업종 신설 최소 투자금액(100억 루피아) 및 예외 사유(특별경제구역 내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투자법 관련 시행령에 명시)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

에 따라 외국인에게 대폭적인 시장 개방

두 전면 허용 업종에 해당합니다. 전면 허용 업종의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보유 지분을 상한 등 투자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바,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가 보장됩니다.

(3) 주요 투자조건의 변경 내역 정리

투자법 개정 및 신규 대통령 규정 제정에 따른 투자조건의 대략적인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

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경 내용 중 기존 한국계 투자자들이 주로 진출한 업종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투자법 외에도 해당 주무부서에서 제정하는 별도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경우가 있고, 나아가 업종에 따라서는 법령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실무 상의 제한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정

분야에 관한 실제 투자 결정 시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개별 업종에 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결론 : 한국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며 투자법 및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규모의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가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우대 업종 분류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조건 변경은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으로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을 보다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와 같은 투자법 개정이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및 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법률신문

업종	기존	변경	비고
건설시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기술 및 계약금액에 따라 구분 1) 고도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로 계약금액 5백억 루피아 이상 : 최대 67% 2)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거나 계약금액이 5백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 지정업종(외국인 투자 불가) 정유 및 가스 건설의 경우 건설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별도 제한 적용(외국인 투자 불가, 최대 49% 또는 75%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용 및 산업용 건물 건설 시공의 경우 중소기업 협업 필요 단순한 기술(Simple and intermediate technology)이 적용되는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지정업종에 해당(외국인 투자 불가)하거나 중소기업 협업 필요(고속도로, 교량) 그 외 건설시공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제한이 없는 부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음 사무용, 산업용 건물 시공에 대해서는 투자 지분 제한은 삭제되었으나, 중소기업과의 협업 필요 단순한 기술(Simple and intermediate technology)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 판단기준은 아직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아래 설명하는 타 업종에 대해서도 단순의 기준에 대해 아직 정한 바 없다는 점 동일함)
금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의 경우 최대 40% (투자자가 금융회사) 또는 30% (투자자가 비금융회사), 또는 20%(투자자가 개인) 보험업/재보험업의 경우 최대 80% (투자자가 동종 업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증권업의 경우 최대 85% (투자자가 비금융회사) 또는 99%(투자자가 금융회사) 복합금융업(Multi-purpose Finance Company)의 경우 최대 85% 	(기준과 동일 / 변경 사항 없음)	금융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은 투자법이 아닌 별도 법령에서 규율하는바, 고용 창출법에 따른 투자법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제한을 유지함
육상운송업	최대 49%	투자 제한 없음	투자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음
포워딩 (화물중개업)	최대 67%	투자 제한 없음	투자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음
대규모 판매 (도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판매업(소위 Wholesale)의 경우 투자 제한 없음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유통업(Distribution)의 경우에는 최대 67% 해산물 유통업은 중소기업 협업(Partnership) 업종 의약품 원료 유통업은 금지 주류 유통업은 일정 조건(라이선스, 유통망 완비) 하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유통업은 중소기업 협업(Partnership) 업종 주류 유통업의 경우 개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향후 추가 제정될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 외 투자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유통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산업부 규정에 따른 별도 제한 및 허가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특정 업종의 투자가 가능 여부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산업부 사전 협의가 요구됨 주류 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개정 사항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음. 따라서,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추가 변경 예상됨.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금지됨 온라인 미디어(인터넷)를 통한 소매 판매업은 중소기업 협업(Partnership) 업종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점(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경우 외국인 투자 허용 (1) 미니마트(Minimart, 면적이 400m² 미만인 소매점)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2) 백화점(Department Store) 중 대형 쇼핑물 내에 위치하고 매장 면적이 400~2,000m²인 경우, 산업부 허가를 조건으로 최대 67% 허용 (3) 매장 면적이 1,200m² 이상인 슈퍼마켓의 경우, 산업부 허가 조건 하에 최대 100%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제한 적용 (1) 자동차 및 오토바이, 중고차, 보석류 등 일부 품목 관련 소매업은 투자 제한 없음 (2) 그 외 쌀, 커피, 의약품, 빵, 신발, 기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중소기업 지정업종(외국인 투자 불가)에 해당 온라인 미디어(인터넷)를 통한 소매 판매업은 투자 제한 없음 미니마트(Minimart, 면적이 400m² 미만인 소매점)은 중소기업 지정업종에 해당(외국인 투자 불가). 그 외 소매점(하이퍼마켓, 백화점, 슈퍼마켓)의 경우 투자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유통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산업부 규정에 따른 별도 제한 및 허가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특정 업종의 투자가 가능 여부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산업부 사전 협의가 요구됨 주류 부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변경 예상됨

조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재 목록 종류에 따라 별도의 제한 적용 :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등의 경우 제한 없음 / 라탄, 대나무 등의 경우 중소기업 협업(Partnership) 업종 목재 가공업의 경우 생산물이 연간 2000m³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지정업종(외국인 투자 불가), 연간 2000m³을 초과할 경우 환경산림부 추천서 발급 조건 하에 투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재 목록 종류에 따라 별도의 제한 적용 : 일부 식재 목록(유칼립투스, 아카시아, 마호가니 등) 조립업의 경우 우대 업종으로 구분 / 라탄, 대나무 등의 경우 중소기업 협업(Partnership) 업종 목재 가공업의 경우 생산물이 연간 2000m³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협업(Partnership)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등 일부 품목 조립업의 경우 기존에도 투자가 허용되었으나, 이번에는 추가로 우대 업종으로 구분되었음 목재 가공업의 경우 생산물이 연간 2000m³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지정업종에서 협업업종으로 변경되었고, 생산물이 연간 2000m³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산림부 추천서 발급 조건이 삭제되었음
팜 플랜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면적 25Ha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지정업종(외국인 투자 불가) 경작면적 25Ha 이상의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최대 49% 2) 지정지역 내의 경우: 최대 95% 3) 전체 면적의 20%를 지역 농장으로 개발할 의무 (Plasma obligation) 부여 	투자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대부분의 한국계 투자자들의 팜 플랜테이션 투자는 최대 95%까지 지분이 허용된 지역이었음 이번 법 개정으로, 로컬 지분 5%를 외국인 지분으로 전환 가능하게 됨
광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 불가 다만 아세안(ASEAN) 국가의 경우 최대 51% 투자 가능 	투자 제한 없음	
발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용량에 따라 별도의 제한 적용 1) 1MW미만: 외국인 투자 불가 2) 1MW ~ 10MW: 최대 49% 3) 10MW 초과: 최대 95% (PPP 사업의 경우 100%) 4) 10MW 이하 지열 발전: 최대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용량 1MW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지정업종(외국인 투자 불가) 그 외 발전사업의 경우 투자 제한 없음 소규모 발전사업(총 투자금 1천억 루피아 미만)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우대업종으로 분류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결제 단계별 별도 제한 적용 1) 연결(Switching), 정산(Clearing), 최종 결제(Final Settlement) 단계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최대 20% 2) 전자화폐(e-money) 발행 서비스의 경우: 최대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결제서비스 공급자(최종 사용자에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외국인 지분 최대 85% 및 의결권 최대 49% 전자결제 인프라 공급자(전자결제 인프라 공급자는 위 전자결제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시스템을 제공하는 자): 외국인 지분 및 의결권 각각 최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업종에 관한 지분 제한은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는바, 변경된 제한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e-money 사업자의 경우 규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석 상 규정 변경 후에는 일용 전자결제서비스 공급자에 해당하여 지분 85%, 의결권 49%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정보통신업 (유/무선통신, 인터넷서비스 등)	최대 67%	제한 없음	다만, 정보통신업은 인허가 사업인 관계상 인허가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 검토 및 주의를 요함
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투자의 경우 별도 지분 제한 없음,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 1) 광물탐사의 경우 최대 75% 2) 채굴 및 가공, 제련의 경우: 채굴 및 가공, 제련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최대 60% 3) 채굴 및 가공, 제련을 통합하여 수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49% 지하 채굴의 경우 70% 외국인 투자자는 상업 채굴 5년 경과 시점부터 지분을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하여, 10년 경과 시점에는 49%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함("Di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조건 및 지분 양도의무("Divestment") 관련 변경 없음 다만 석탄 개량(Upgrading) 및 액화(liquefaction) 사업의 경우 일정 지역(칼리만탄, 파푸아 등)에서만 허용 특정 광물의 가공 및 제련업(구리, 니켈, 망간 등)이 우대업종으로 구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업종의 일반적인 투자 조건은 투자법이 아닌 광업 관련 별도 정부령과 에너지광물자원부령에서 규율하는바, 본 고용창출법에 따른 법령 개정의 범위에 해당 정부령 및 부령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투자조건의 변경은 없음 다만 신규 네거티브리스트 상에는 석탄 개량 및 액화 사업의 지역 제한, 특정 광물의 가공 및 제련업 우대업종 지정 등이 추가되었는바, 해당 내용은 기존 광업 관련 정부령 및 부령과 함께 광업 관련 투자조건을 구성함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 및 가스 관련 1) 탐사(surveying): 최대 49% 2) 시추(drilling): 육상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해상인 경우 최대 75% 3) 관련 지원업(유지관리, 설계, 검사 등): 외국인 투자 불가 지열(Geothermal) 에너지 관련 1) 탐사: 최대 95% 2) 시추: 최대 95% 3) 유지관리: 최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사, 시추업의 경우 제한 없음 관련 지원업 중 기술 컨설팅업의 경우 단순한 기술(Simple and intermediate technology)이 사용되는 분야는 중소기업 지정업종(외국인 투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기술(Simple and intermediate technology)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아직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사고력 기반 융합교육 기업, CMS에듀 인도네시아 진출 “수학의 본질은 생각을 자유(自由) 하는 데 있다.”

자카르타 남부 Darmawangsa Square를 지나 K마트로 향하는 길, 코너에 세련된 한국어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CMS에듀 대치영재관 자카르타센터’, 국내에서는 수학적 사고력 기반 융합교육, 영재교육 기업으로 잘 알려진 CMS에듀이다. 궁금증과 반가움에 필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 CMS에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CMS에듀 자카르타센터는 CMS에듀가 해외에 처음으로 설립한 직영 운영 센터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교육 사업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작년 코로나가 발발하기 시작할 때 즈음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12월부터 온,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 쾌적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 내부가 눈에 들어왔고, 마음 한 켠에는 드디어 자카르타에도 국내 유명 수학 브랜드 학원이 들어왔구나 하는 반가움이 크게 자리 잡았다. 이 글을 읽는 초, 중등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199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학적 사고력 기반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생각하는 수학교실’로 출발한 CMS에듀는 2003년 지금의 법인을 설립한 이래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레퍼런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제34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Korean Mathematical Olympiad)에서 CMS에듀는 절반에 가까운 역대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이 대회에서 CMS에듀는 지난 10여년간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한다. 또한 2020년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서도 역대 최다인 3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사실상 국내 프



리미엄 교육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한다.

CMS에듀 관계자로부터 기본적인 회사 소개를 듣는 동안, “이렇게 유명한 교육기업이 왜 힘든 시기에 자카르타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과 궁금증이 생겨 이윽고 물었다. 현지에 파견 나와 있는 CMS에듀 관계자는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으나, 해외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 기업의 소명이요, 중, 장기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교육을 인도네시아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고 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제법 시간이

지난 재외 동포이자 한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가슴 깊은 울림이 있을 정도로 기분 좋은 답이었다. 그렇다. 인도네시아는 어쩌면 그 동안 중국, 베트남, 태국에 밀려 한국 교육 기업들에게 제대로 관심 받지 못한 교육의 불모지 같은 곳이었다. 교민과 주재원 가정의 자녀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교육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런 자카르타에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교육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곳에서도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한편 안도감이 들었다.

사무실로 복귀한 뒤, 궁금해서 CMS에듀와 관련된 흔적들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CMS에듀가 국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앞서 말한 수학적 사고력 기반의 융합 교육이라는 점이 계속해서 머릿 속에 맴돌았고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과연 수학적 사고력 기반의 융합 교육이란 무엇일까? CMS에듀 관련된 보도 기사를 살피던 중, CMS에듀 이중국 대표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다. “수학의 본질은 생각을 자유(自由) 하는 데 있다. CMS에듀는 소크라테스식 발문법인 ‘산파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의미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왔다.” 고 한다. 이



어 이중국 대표는 “지금의 직업트렌드의 변화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인재 대신 사고력과 상상력을 접목한 미래형 융합인재를 필요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 소양이자 의무 교육 과목으로 자리 잡은 코딩 교육을 혁신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한 교육의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것이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력과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는 CMS에듀와 이중국 대표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띈다. CMS에듀는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공모한 국책과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선정돼 5G 기반의 AR, MR(가상·혼합 현실) 사고력 콘텐츠를 개발하는 중이고, 게임엔진과 VR(가상 현실), AR(증강현실)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 유니티(Unity Technologies)와 교육 플랫폼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썬 학습 도구 ‘코드얼라이브(CodeAlive)’를 작년 12월 국내에서 출시한바 있다. 코드얼라이브는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파이썬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온라인 코딩교육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CMS에듀는 더 이상 유명한 수학교육이 아닌 요즘 소위 말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예고 없이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지난해 교육 업계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한편 CMS에듀는 온라인 클래스 ‘CMS ON’을 론칭하면서 사고력 수업을 디지털 인터랙티브 교구 등을 활용해 온라인화 한 ‘노이지(Noisy)’와 영재관 수업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엣지(Edge)’를 출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CMS에듀의 차별화된 융합 사고력 콘텐츠와 효과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주소: Jl. Darmawangsa VI No.51-52, RT002 / RW001, Pulo, Kebayoran Baru,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60, Indonesia
전화번호: 021 2709 0987
네이버 밴드: <https://band.us/@cmsedu>

Water Treatment SPIRAL FILTER SYSTEM



필터 교환이 필요없는
신기술 나선형 여과재를
이용한 정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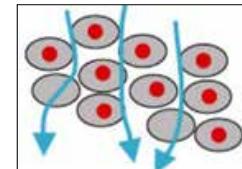


획기적인 신소재 초경량 여과재 사용
물리 여과와 생물 여과가 동시 가능
약품 처리하지 않는 친환경 시스템
살균과 연수 기능 보유
24시간 자동 순환 정수 시스템
항상 깨끗한 여과재 유지, 사용 == 매일 자동 역세정 청소
좁은 공간 설치 가능 5 TON: 2X1m., 10TON: 2.5X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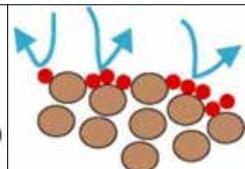
적용 분야

- 공장, 가정의 지하수 처리 수질 개선, 생활 용수 냉각탑(COOLING TOWER == 강추)
- 가축 음용수 수질 개선으로 폐사율 저감 및 발육 촉진(양계)
- 식물 재배 농가 지하수 처리
- 수족관 수질 관리
- 양식장의 해수 및 담수 처리

Spiral 여과재



모래 여과재



AR PT. ARI TECH INDONESIA

Jl. Raya Pasar Kemis Km. 3.5, Kuta Jaya, Kec. Pasar Kemis
Cabang: Ruko Pinangsia Blok H-28 Lt.3, Lippo Karawaci Tangerang
Tangerang - Indonesia. TELP : +62 815-4655-5680

활활 불 탄 나이키 운동화 ... 中서 H&M · 나이키 불매 확산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 소수민족 차별 비판했다고...



▲지난 24일 베이징의 H&M 매장. 로이터 연합뉴스, 트위터 캡처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H&M과 나이키가 중국에서 불매 운동의 표적이 됐다.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신장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 소비자들의 분노가 H&M으로 향했다.

H&M이 지난해 9월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에 대해 공식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 때문이다. 당시 H&M은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이 게재한 H&M 불매 운동 게시물. 웨이보 캡처

“신장에서 벌어진 강제노동과 소수민족 차별 등의 고발이 담긴 사회단체와 언론 보도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지역에서 재배되는 면

화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같은 중국 내 영향력 있는 집단은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에 H&M의 성명문을 공유하고 제품 불매를 주도하고 있다. H&M이 성명을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나 중국 현지서 못매를 맞게 된 것이다. 공청단은 24일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신장 면화를 벌려하나? 허황된 망상”이라며 H&M을 비난하기도 했다. H&M 성명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텐마오(T몰) 등에서는 H&M 관련 제품은 검색 불가능 상태다. 심지어 일부 지도 앱에서도 ‘H&M’을 검색하면 결과를 찾을 수 없다.

H&M에 이어 나이키도 불매 대상으로 떠올랐다. 나이키 역시 신장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보도에 우려를 표하고 “나이키는 이 지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누리꾼은 나이키 신발을 불에 태우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불매 여론이 거세지자 나이키 광고 모델인 중국 인기 스타 왕이보도 나이키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나이키’가 인기 검색 화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나이키’ 해시태그는 10억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70만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때 웨이보 인기화제 10위 안에 신장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관련 화제가 7개에 이르기도 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유니클로, 아디다스, 겐, 휠라, 뉴발란스 등도 불매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의 불매 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즈노에서 NEXLITE 시리즈 최경량 250g 이하 골프 슈즈 선보여

미즈노가 NEXLITE(넥스라이트) 시리즈 사상 최경량인 스파이크 골프 슈즈 ‘NEX-LITE008 BOA’를 2월 17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NEXLITE008 BOA는 미드솔의 발꿈치 부분 두께를 기존의 NEXLITE006 BOA보다 약 3.5mm 얇게 하는 것으로 약 35g 경량화해 시리즈 최경량인 약 240g(250mm 한쪽) 달성에 성공했다. 미드솔의 발꿈치 부분에는 격자 모양 흡을 도입하여 쿠션성도 추구했다.

어퍼 컬러로는 화이트×실버, 블랙, 라이트 블루의 3색이 있으며 색상별로 소재가 다르다. 화이트×실버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는 인공 피



▲신축성이 있는 니트 소재를 도입한 라이트 블루

혁인 클라리노를, 블랙은 통기성과 착용감을 추구해 메시를, 라이트 블루는 핏감을 중시해 신축성이 있는 니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어퍼 소재의 뒷면에는 방수용 라미네이트를 겹쳐 방수 기능을 추가했다. 사이즈는 240~270, 280, 290mm가 있으며 가격은 오픈 가격이다.

“한국으로 송금”은 앞으로 쪽~

『신한 Network』 송금이 함께합니다.

신한 Network 송금이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에서 『한국신한은행』 계좌로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전문을 주고 받아 중계은행 수수료(correspondent fee / USD 25불 상당)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빠르게 수취가 가능한 새로운 해외송금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① 중계 수수료(통상 20\$-25\$)가 발행하지 않아 송금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수수료부담 구분	납부 수수료	비고
송금인만 부담 시	Cable fee USD 5 + 입금 수수료 USD 10	한국 수취인 수수료 “無”
수취인 공동 부담 시	Cable fee USD 5 only	한국 수취인 수수료 : “만원 - 오천원”

* 상기 수수료는 IDR 통장에서 USD로 송금 보낼 경우 적용되며, USD 통장에서 USD로 송금 보내는 경우 0.12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
* IDR 통장에서 USD로 환전송금 시 월 25천불, USD 통장에서 USD로 송금시 10만불 까지 증빙자료 없이 송금 가능

② 모바일뱅킹 sol 에서도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 뱅킹 sol 을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 모바일뱅 송금시 모바일이체 최대 한도인 5억루피 상당금액 까지 송금 가능
- 기본 40% 환율우대 (5천불 초과 시 60%, 1만불 초과 시 80% 자동 환율 우대) 적용됩니다.

③ 해외송금 소요시간이 줄어듭니다

중계은행(미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송금 되는 만큼 오후 12시(자카르타 기준) 이전 송금 시 한국 입금 계좌 관리점에서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④ 원화(KRW)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 원하시는 원화(KRW)금액(예 : 백만원 송금) 지정 후 한국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영업점 창구 송금)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원·루피아 고시 환율’ 기준 50% 환율우대 적용됩니다.
- * 동일자(동일인) 기준 2만불 초과 상당의 원화 금액을 보내시는 경우 한국 영업점에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카카오톡 상담신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후 상담하세요!
카카오톡 ID : 'SHB INDONESIA'

하나 선교 교회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을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예배 : 매주수요일 저녁 7시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뉴발란스, 온 및 아디다스, 세 브랜드가 선보인 컬래버 상품 3종

눈길을 끌고 있는 선수/브랜드 컬래버레이션 3가지가 발표됐다. 농구스타와 테니스 전설의 시그니처 라인 출시 뿐만 아니라 올스타를 테마로 한 농구화 컬래버레이션이 그것이다.

봄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뉴발란스와 뉴욕 메츠 유격수 프란시스코 린더(Francisco Lindor)가 뉴발란스 최초 시그니처 야구화와 어패럴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 컬렉션에는 풋웨어와 어패럴, 헤드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디자인 모티브는 린더의 다재롭고 긍정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린더 1(The Lindor 1)' 풋웨어에는 두 가지 컬러의 야구용 클리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신을 수 있는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뉴발란스의 린더 1(Lindor 1); 온의 로저 어드밴티지(ROGER Advantage); 아디다스 x 도노반 미첼의 톱 텐 하이(Top Ten Hi)

이 시그니처 야구화에는 린더의 고향인 푸에르토리코의 공식 국화(國花)인 '히비스쿠스(Flor de Maga)'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발란스 x 린더의 전체 컬렉션은 이번 달에 구입 가능하다.

러닝화로 유명한 스위스 브랜

드 온은 스위스의 테니스 전설 로저 페더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덕분에 테니스에서 영감을 받은 풋웨어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온의 로저(ROGER) 컬렉션의 일환인 페더러의 세 번째 상품 로저 어드밴티지는 일상화로 신을 수 있게 디자인했다. 깔

끔한 라인과 최소한의 스티치, 부드러운 매트 비건 가죽,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 이 풋웨어는 온의 클라우드텍(Cloudtec) 쿠셔닝과 에너지 반동을 위한 스피드보드(Speedboard) 기술을 사용했다.

풋 로커와 아디다스는 NBA 올스타 도노반 미첼(Donovan Mitchell), 트래 영(Trae Young)과 팀을 이뤄 득점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했다. 두 선수 모두 아디다스 팀과 협업해 스니커즈를 디자인하고 있다.

미첼의 아디다스 톱 텐 하이(Top Ten Hi)는 뉴욕(그가 자란 곳), 루이스빌(그가 대학을 나온 곳) 및 유타(그가 현재 속한 유타 재즈 팀의 고장)를 기리는 블루, 화이트, 블랙 및 그린 컬러로 배색을 했다.



그리고 어두운 컬러를 더했으며 그의 별명인 스피다(Spida)를 텅에 로고처럼 장식했다. 한편, 트래 영의 아디다스 톱 텐 하이는 어퍼 전체에 화이트 컬러의 풀 그레인 가죽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의 등번호 11번으로 마감 처리했으며 텅과 발목 부분은 오렌지, 미드솔은 아이스 블루 컬러를 사용했으며 투명한 밑창 속에는 그의 별명인 "아이스 트래(ICE TRAE)"를 새겼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출시한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등산화 '야크343 D GTX'의 인기몰이에 힘입어 신발 라인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블랙야크의 '야크343 D GTX'은 출시 때부터 '아이유 등산화'로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제품 출시와 함께 진행된 '야크 343 캠페인'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신발 라인 전

체의 판매 호조를 이끌었다는 평이다.

'야크343' 캠페인은 등산 30%, 하산 40%, 일상 30%의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을 통해 안전한 산행 후 남은 에너지로 일상을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은 블랙야크의 이번 시즌 브랜드 캠페인이다. 제품

의 기능성, 산란이의 산행 문화와 낭만을 자연스럽게 담아내 캠페인에 동참하는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캠페인 속 등장하는 등산화 '야크343 D GTX'는 블랙야크의 기술력이 집약된 아웃솔·미드솔, 국내 폐트병을 재활용한 인솔이 가장 큰 특징인 제품으로 공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이지 색상은 출시한 달 만에 전체 판매율 56%를 넘겼고, 이 제품의 인기로 블랙야크 신발 라인의 매출은 현재 전년 동기대비 91% 성장했다.

특히, 아이유가 친구들과 함께 정상에 올라 밤하늘을 보며 야간 산행의 낭만을 즐길 때 착용한 고어 자켓인 'M머스트GTX자켓'은 일부 색상이 완판되어 2차 리오더 예정이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야크343 D GTX는 블랙야크 신발 라인 중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등하산을 위한 기술, 신는 그대로 남은 에너지를 즐길 수 있는 일상을 위한 디자인, 친환경 요소 등 블랙야크의 차별화된 상품 기획과 브랜드

블랙야크, 신발 매출 91% 상승 ... "신발에 날개 달았나?"

'아이유 등산화' 출시와 야크343 캠페인으로 인기몰이... 신발 전년대비 91% 매출 성장



▲블랙야크 아이유 화보컷 블랙야크 제공

멤버서터 아이유와 협업 브랜드 캠페인으로 MZ세대의 변연스럽게 보여준 것이 인기 요인으로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나이스 키스 x 아메바 뮤직 x 뉴발란스 992 및 의류 컬렉션 출시 정보 민트 vs 옐로, 당신의 선택은?



스니커 편집숍이자 매거진인 나이스 키스와 캘리포니아의 음반 매장 아메바 뮤직 그리고 뉴발란스가 각자의 매력을 담아낸 협업 뉴발란스 992를 출시한다. 협업 992 2종은 각각 옐로와 민트, 두 가지 컬러를 메인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스니커의 오버레이에는 그레이 컬러가, 토캡 및 토박스에는 옐로 컬러가 칠해졌으며 슈레이스에는 민트

컬러가 더해졌다. 또 한 가지에는 오버레이에는 블랙, 토캡 및 토박스에는 민트 컬러가 칠해졌으며 슈레이스는 강렬한 레드 컬러로 마감되었다. 두 스니커 모두 힐랩에는 'PEACE' 문구가 더해졌으며 그 아래에는 뉴발란스의 브랜드명이 새겨졌다. 이 밖에도 아메바 뮤직의 아이코닉한 슬라임 로고가 활용된 후디, 티셔츠, 쇼트가 출시된다. 나이스 키스 x 아메바 뮤직 x 뉴발란스 992는 4월 2일부터 나이스 키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2백40 달러, 한화 약 27만 원이다.



LED등의 모든것 비교할 수 없는 가격!

놀라운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 +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Telp : 021-8935075 / 77
021-89842162
Fax. 021-8937739

Contact Person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LED Tube T8 18W - 형광등



Price **Rp. 55.000**
LED CHIP : SAMSUNG
Warranty : 3 Years
CCT : 6500K
INPUT POWER : TWE WAY(2SISI/양방향)

LED Streetlight 50W - 보안등



Price **Rp. 350.000**
Warranty : 3 Years
Power : COB 50W*1
Waterproof Class : IP65
CCT : 6500K

LED Highbay 100W - 공장등



Price **Rp. 1.110.000**
Warranty : 3 Years
Waterproof Class : IP65
PF : 0.95
CCT : 6500K

LED Streetlight 100W - 가로등



Price **Rp. 650.000**
Warranty : 3 Years
Power : COB 50W*2
Waterproof Class : IP65
CCT : 6500K

LED Highbay 150W - 공장등



Price **Rp. 1.400.000**
Warranty : 3 Years
Waterproof Class : IP65
PF : 0.95
CCT : 6500K

LED Streetlight 150W - 가로등



Price **Rp. 1.100.000**
Warranty : 3 Years
Power : COB 50W*3
Waterproof Class : IP65
CCT : 6500K

Ex PPN / Jabotabek Price / Promo before Lebaran 2021

미국 최고 경영진, 향후 6개월 동안의 풋웨어 업계 전망하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풋웨어 업계 리더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하지만 미국 풋웨어 유통업체 및 리테일러(Footwear Distributors & Retailers of America, FDRA)가 미국 풋웨어 업계 경영인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풋웨어 사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FDRA에 따르면, 업계는 미국 경제와 풋웨어 소비자들의 구매력 모두에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 중 74%가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경제와 풋웨어 소

비자의 구매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6개월 동안 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응답자 중 35%는 생산 및 공급망 비용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코로나 19 때문에 웨스트코스트 항구 문제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달해 운영 중단과 컨테이너 물량 급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풋웨어 업계 경영진 중 약 32%는 “신규 고객 행동 변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발생하자, 수많은 기업들이 자원을 디지털화 해야 했다. 그리고 온라인 픽업 매장



뿐만 아니라 비대면 유연 결제 방식 같은 편의 서비스에 투자해야만 했다. 동시에, 격리 조치로 인한 상품 트렌드로 운동화(러닝화 및 하이킹화)와 콤포트화(애슬레저) 같은 카테고리가 강세를 보였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변모한 행동이 유지될 것이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자, 경영진들은 코로나로 인해 영구적으로 변해버린 소

비자 행동과 향후 유입하게 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전

략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FDRA가 조사한 독자의 약 18%는 코로나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9%는 비용 같은 노동력, 품질 및 부족 문제를 손꼽았으며, 3%는 세금과 규제 같은 정부 문제, 또 다른 3%는 재고 및 리테일 가격을 지적했다. 향후 수 개월 동안의 계획을 전망한 경영진들은 6개월 전에 비해 운영비 사용처를 크게 분배했지만, 응답자 중 3분의 2 가량은 향후 6개월 동안에 걸쳐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노브-8, 맨체스터 대와 손잡고 강화 그래핀 소재 개발

영국의 운동화 브랜드 이노브-8(Inov-8)이 최신 컬렉션을 위해 맨체스터 대학교와 협업해 그래핀 강화 품을 개발했다.



▲출처: Footwearbiz.com

설립자 웨인 에디(Wayne Edy)는 지난 해 데상트에서 스포츠 기업을 다시 사들였으며 새로운 풋웨어 디자인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신제품에는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3가지 기술이 사용됐다.

2003년 이노브-8을 설립했으며 현재 북아시아 외부 사업을 100% 소유하고 있는 웨인 에디는 “흥미로운 새 장에 들어와서 기쁘다. 2015~2020년까지 데상트 그룹의 일원으로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독립해 최대 규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그래핀 성분을 특징 지은 과학자 안드레 게임(Andre Geim) 및 콘스탄틴 노

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가 현재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노브-8은 2018년 접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래핀 강화 고무를 사용했다.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나노소재 연구를 이끌고 있는 아라빈드 비자야라가반(Aravind Vijayaraghavan) 박사는 “이것은 이노브-8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다. 그래핀 그립(Graphene-Grip) 고무를 세계적으로 성공시키고 이노브-8 풋웨어의 차세대 품에 그래핀의 최상급 속성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 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망그랑 리본 까라와치 루고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Tel : 021.5980.222 / 5982.666
 Tomi Hp : 0811 8582 384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2021년 2월 16일(유럽 현지 시각) Adidas는 “Reebok 전략적 선택 평가” 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5개년 전략의 일환으로 Adidas는 공식적으로 Reebok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1분기부터 Adidas 그룹은 Reebok의 실적 보고서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처한 스포츠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 기회는 매우 매력적이며, 특히 상징적인 스포츠 브랜드에 매우 유용하다. “Adidas의 최고경영자(CEO)인 Kasper Rorsted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Adidas와 Reebok은 두 개의 독립된 브랜드로서 성장 잠재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는 Reebok 브랜드와 그 팀의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복에서 계류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은행 소식통은 거래 가치가 10억 유로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독일 언론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Adidas는 코로나 이전에 Reebok의 판매 가치를 20억 유로 이상으로 평가했다.

2006년 Adidas는 Reebok을 매입하기 위해 38억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하였다.

Adidas는 Reebok의 빛나는 순간에 거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Reebok의 매출은 1985년에 3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1년 만에 3배 증가하여 1986년에 9억 9100만 달러에 도달했다.

Reebok은 1987년 14억 달러의 매출로 나이키의 연매출 9억 달러를 넘어 세계 1위 운동화 브랜드로 등극했다. 1991년에는 그 수치가 27억 달러로 증가했다.

Reebok은 2001년 NBA와 함께 NBA 유니폼 제조사가 되기로 합의했고, 이후 NFL 리그의 유니폼 후원권을 쟁취했다. 2006년 Adidas는 38억 달러에 Reebok을 인수했다. 38억 매입에서 10

손을 잡은 지 15년, Reebok과 Adidas 끝내 이별

Adidas 끝내 Reebok과 “헤어지다”



억 매도로 ‘싸구려’ 가 된 배경에는 Reebok이 ‘심복’에서 ‘계류’으로 전략한 역할전환이 있다.

2006년에는 나이키, Adidas, Reebok이 3대 스포츠 거물이었으나, 당시 Adidas는 “2 + 3 > 1”의 효과를 기대하며 나이키에 대응하기 위해 Reebok을 인수했다. Reebok 인수 후 매출 101억유로를 기록, 나이키와의 격차를 20억 유로까지 좁혔던 Adidas로서는 확실한 승부수였다.

그러나 인수 후 Reebok의 발전은 꾸준히 감소했다. 우선 Adidas에 NBA 및 WNBA 유니폼 후원권을 넘겼으며, 2010년에는 Adidas가 Reebok에서 마지막 메이저 계약인 NHL을 가져갔는데 한때 NFL 수익은 Reebok 총 수익의 2/3를 차지했다.

이는 Reebok의 3대 실적 카드가 모두 Adidas에게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2014년 리복은 로고 교체, 코스 변경, 피트니스 시장에 주력한다고 발표했으나, 그해 Reebok이 팔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2014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홍콩과 아부다비 투자자로 구성된 재단이 22억 달러 Adidas 그룹에 인수를 제안했지만 Adidas가 당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니콘 고위 자문 그룹의 일원인 Wang Guoping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Adidas와 Reebok은 원래 포지션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Reebok을 인수한 후 Adidas는 Reebok의 우세한 자원을 흡수해 점차 Reebok을 소외시켰고, Reebok은 이미 틈새 시

장의 Lululemon을 목표로 삼았다. Reebok은 이제 Adidas에게 가치도 없고 위협도 되지 않기 때문에 팔아서 환전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

Reebok은 인수된 후 실적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Reebok은 2006년 Adidas에 인수됐을 때 그룹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9년 Reebok은 그룹 매출의 7.4%에 불과했다. Adidas CEO인 Sper Roster는 Reebok 인수를 “회사 발전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이 Reebok ‘분리’의 주 원인일 수 있다.

유니콘 특약 칼럼니스트이자 소매상인 손우룡은 유니콘 넷에 이렇게 전했다.

“Adidas의 Reebok 인수 15년, 처음의 전략적 동기는 Reebok의 운영을 통해 나이키에 맞서면서 더블 브랜드 다비전 선도적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Reebok이 Adidas에 편입된 이후의 작전은 전략적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didas의 경영에 부담이 되었으며, 2016년 Adidas는 Reebok의 변화와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 사태 전 Reebok의 경영상황이 나아지는 듯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의 영향으로 Adidas의 경영업무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Adidas의 주력 브랜드의 선두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연적이었으며, Reebok은 이 때문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

이 불가피하다.”

자신을 스스로 구하다

2014년 Reebok은 피트니스 시장 진출을 발표했지만 피트니스 시장은 Lululemon의 천하였다.

Lululemon 외에도 Reebok은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

Reebok Tmall 플래그십 스토어의 정보에 따르면 Reebok은 현재 클래식 레저, 스포츠 트레이닝, 프로 트레이닝 시리즈로 나뉘어 있는데 이러한 카테고리는 고수인 Nike, Adidas, Under Armour, 중국의 Anta, Li Ning 등이 집중하고 있어 Reebok은 돌파하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적자를 냈던 Reebok은 2018년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고, 2020년 코로나 사태는 Reebok에 큰 타격을 입혔다.

Caijing.com.cn에 따르면 Reebok 글로벌 매장이 지난해 3월부터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Reebok 매출은 2020년 1~9월 20% 감소했고, 2분기 수입은 42.3%나 급감해 Adidas의 핵심 브랜드 보다 감소폭이 약간 컸다. 또 합작 브랜드 CrossFit의 창업주가 인종차별 발언으로 미국 전역에서 보이콧을 당하자 Reebok 브랜드 이미지도 위기에 빠졌다.

물론 Reebok은 연맹을 통해 위기를 되돌리고 Z 세대를 위해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다. Reebok은 2020년 ‘툼과 제리’, 울트라맨, 미니언즈 시리즈와 어썬신을, 2021년에는 ‘쿵푸 팬더’와 ‘페파 피그’ 아동화 시리즈를 선보였지만 파격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90년대 생 왕빙은 유니콘 넷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Reebok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입한 적이 없다. 쇼핑몰에서 봤지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부분

이다. 유명한 신발이 못 생긴 경우도 많긴 하다”.

같은 90년대 생인 청청은 이렇게 표현했다. “한 켤레 샀지만 ‘입덕’ 하진 않았다. PUMA와 느낌이 비슷하다”.

상하이의 한 백화점 책임자인 팡창(方强)은 유니콘 넷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Reebok 브랜드의 노화가 심각해 Z세대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스포츠 제품들은 전기상, 오펜레스, 도시올레의 개점속도에 영향을 받아 도시 지역의 스포츠 제품들은 더욱 개성화 된 신상품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형 매장과 플래그십 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고, 시장에 보이는 점포는 많지 않았다”

Reebok은 스포츠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왕귀평은 유니콘 넷에서 “신발과 의류의 핵심 가치는 생산라인과 채널이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 고품질 디자이너 자원 없이는 Reebok이 경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향후 귀취

Adidas의 Reebok 매각 발표 이후 인수자가 업계의 최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Anta Sports, Timberland와 North Face를 소유한 미국 워브사와 일부 개인모금 투자회사가 잠재적 구매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NBA 농구선수 샤킬 오닐은 Reebok 인수와 관련해 공식발언을 했다.

패션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중국 스포츠웨어 거대 기업인 anta 그룹의 주가는 작년 한 해 동안 107%나 치솟았으며 시가는 3989억 홍콩 달러로 LiNing의 3배에 달하며, 중국에서 값 비싼 의류 회사로 lululemon을 제치고 세계 3대 패션그룹으로 부상했다.

Wang Guoping은 Reebok의 독립적 운영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Business Instruction

01. A/S & Spare parts

- One-stop Service 체제 가동
- 각종 재봉기 및 자수기 부품 판매

02. Sewing Machine

- 신발 현장에 최적화된 재봉기 판매
- 현장 합작 특수 재봉기 개발 및 판매

03. Embroidery Machine

- 현장에 맞는 다양한 HEAD 자수기 개발 및 판매
- 신개발 원단에 최적화된 특수 자수기 및 옵션 장치 개발 및 판매



04. Special Machine

- 생산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 생산 현장의 슬립화를 위한 다공정 가능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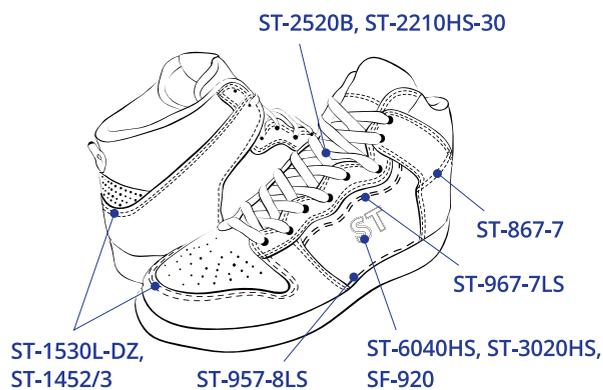
05. Automation Device

- 다양한 Automation Device 개발로 생산 효율성 증대

06. IoT System& Device

- IoT DEVICE 및 SYSTEM 개발로 생산 현장의 빅데이터 생성 및 저장. OEE, KPI 등 각종 데이터 산출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판매

APPLICATIONS



NEW PRODUCTS



2-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2, ST-6040HS-C2



3-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3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666H, ST-777H



신발 생산 전용 자수기
SFT-10616



CIKAK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62-811-179-2248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91-7520-288
+62-811-911-2284 (Local)